

낙엽 편지

김애숙

낙엽은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낙엽 깔린 십일월 거리에서
 십년 전 여름으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십년 전 겨울 속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낙엽은 미래로 가는 차표입니다.
 지금 낙엽을 집어 책장 사이에 꽂으면
 먼 훗날 언젠가 낙엽 책갈피에서
 오늘의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남은 생애에서 제일 젊은 날...
 지금 책장 사이에 꽂는 낙엽은
 젊은 내가 낙엽이 되어가는 내게 보내는 거울입니다.

낙엽만큼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지 비춰 보라고,
 낙엽만큼 사랑하며 시들고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내가 내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생각라테」 중에서

